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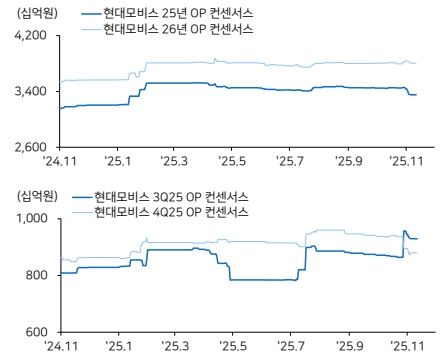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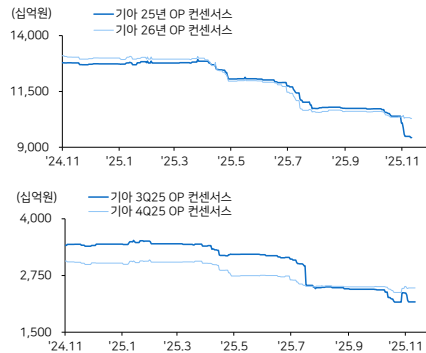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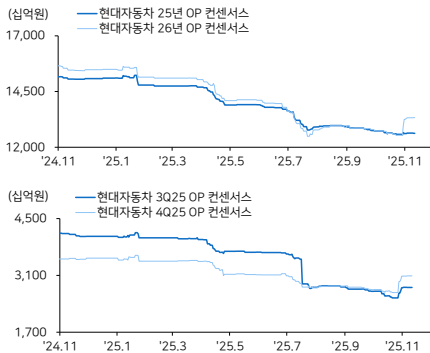
2025.11.27 (목)

자동차/모빌리티 Analyst 김준성 joonsung.kim@meritz.co.kr
RA 김아현 a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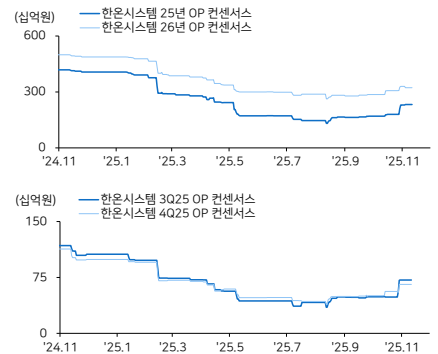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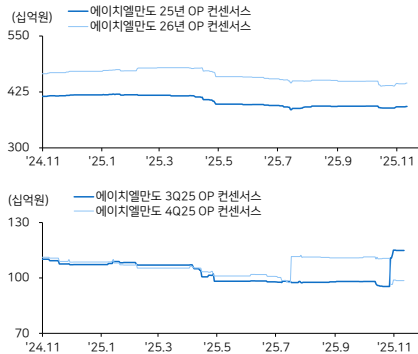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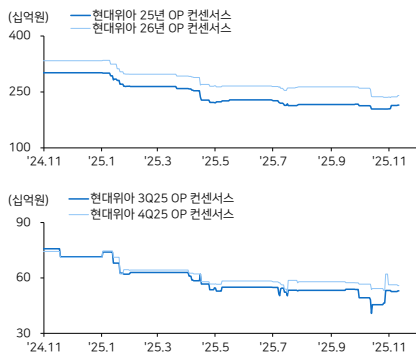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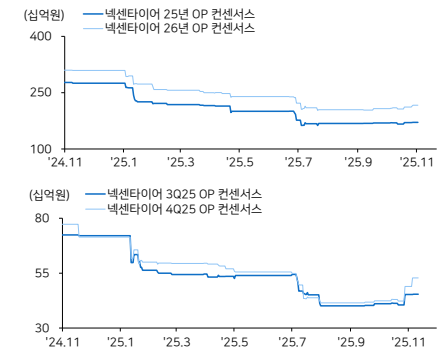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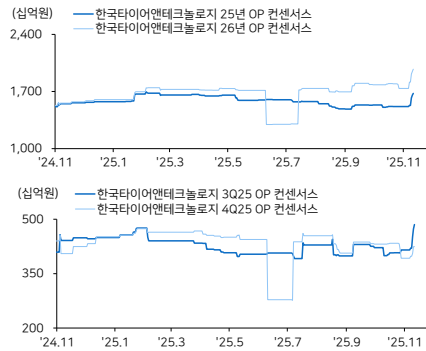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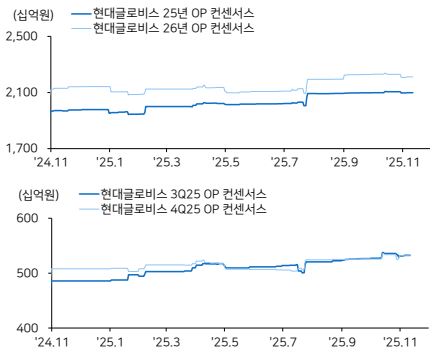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현대글로비스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국내외 주요 뉴스

Tesla CEO Musk says Austin robotaxi fleet to double next month (Reuters)

Tesla는 6월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12월 텍사스 내 로보택시 대수를 약 2배로 늘릴 계획. 연말까지 미국 8~10개 대도시권에서 운영 목표. 연말까지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 안전 요원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영 예정
<https://han.gl/XZt1>

European carmakers hope for reprieve on 2035 combustion engine ban (Reuters)

유럽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하고 중국 경쟁이 거세져서, EU가 12/10 발표할 자동차 산업 지원책에 기대를 걸고 있음. OEM들은 2035년부터 신차 내연기관 전면 금지 규정을 완화하거나 전기차 수요 촉진 인센티브를 원하고 있음
<https://han.gl/nfepo>

Huawei-backed Maextro to launch multiple new models in 2026 for intensified push in luxury car market (CnEVPost)

Huawei-JAC 합작 럭셔리 브랜드 Maextro가 내년 SUV와 MPV를 각각 표준/플러그인 버전으로 출시하며 총 6개 모델 라인업 구축. 현재 S800 세단은 출시 100여 일 만에 확정 계약 1.8만 대를 돌파하며 선전 중
<https://han.gl/L9kVG>

GWM plans to build European plant with annual capacity target of 300,000 cars, report says (CnEVPost)

GWM은 유럽 내 첫 공장 부지를 모색 중. 2029년까지 유럽 연간 생산능력을 30만 대로 확대 목표. 2023년 이후 처음 공개된 유럽 생산 계획 업데이트로 현재 스페인과 헝가리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입지를 검토 중. 인건비와 물류 비용이 주요 결정 요인
<https://han.gl/mrOF6>

BYD 프니 중국작 불발이 들어온다...자가형 계속 통할까 (노컷뉴스)

중국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으며, BYD는 올해 외국산 전기차 4위에 오른, 보조금 적용 시 2000만원 미만으로 구매 가능, 내년에는 자차·사용형 등 추가 진출과 자가형 모델 '돌핀' 출시로 성장세 가속 전망
<https://han.gl/JZ6Un>

Tesla flags low maintenance and fuel costs to woo Indian buyers (Reuters)

Tesla는 인도에서 100% 수입관세로 인해 모델 Y를 67,000달러(약 9천만 원)에 판매 중. 9월부터 현재까지 100대 정도만 팔림. 현재 뭄바이·델리·구루그렘에 슈퍼차저를 설치하며 판매·서비스 거점을 넓히는 중
<https://han.gl/VoAbw>

China NEV retail at 849,000 in Nov 1~23, up 3% year-on-year (CnEVPost)

11월 1~23일 중국 승용차 소매 판매 중 NEV 비율은 61.3%, NEV 소매 판매량은 84.9만 대(+3% YoY). 전체 승용차 소매는 138.4만 대(-11% YoY) 기록. CPCA의 11월 전체 전망은 NEV 135만 대, 침투율 약 60%
<https://han.gl/cVpm2>

Li Auto turns to loss in Q3 as deliveries plummet and Li Mega recall takes toll (CnEVPost)

Li Auto는 인도에서 100% 수입관세로 인해 모델 Y를 67,000달러(약 9천만 원)에 판매 중. 9월부터 현재까지 100대 정도만 팔림. 현재 뭄바이·델리·구루그렘에 슈퍼차저를 설치하며 판매·서비스 거점을 넓히는 중
<https://han.gl/K00Tb>

이달 1일차 대미 후관세 인하 소급...업계 "수출 불확실성 해소" (전자신문)

한미 자동차 관세가 25%→15%로 인하되고 11/1 소급 적용 가능성이 높아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전략투자 특별법안' 발의. 소급 적용 시 현대차, 기아의 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내년 미국 수출 경쟁력 회복될 전망
<https://han.gl/xLGAM>

기아, PV5로 유럽 PBV 시장 정조준...전용 서비스망 650곳 선포 (더구루)

기아가 전기 PBV 'PV5'로 유럽 상용차 시장 공격에 나선. 이미 유럽 2007개 딜러 중 650곳을 PV5 전용 서비스 거점으로 인증 발의. 독일에서 연말까지 100개 추가 확보. Sortimo·Bott 등 파트너와 맞춤형 솔루션 및 물류·충전 통합 서비스 제공
<https://han.gl/1ihCT>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